국보서 비지정까지 칠 괘불탱 원형 살피다

성보문화재硏 · 문화재청 '대형불화 정밀조사' 보고서 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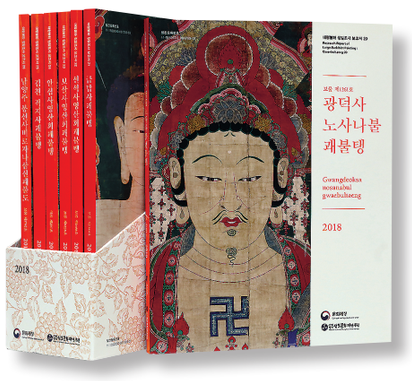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영산재, 수륙재 등 대규모 야외 불교 의식에 꼭 등장하는 불화가 있다. 바로 대형불화, 괘불탱이다. 10여m가 넘는 웅장한 크기와 화려한 색채로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유 · 무형의 독창적 예술세계를 괘불탱은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괘불탱은 궤에 넣어 보관하는 특성상 보존 상태를 확인하기 어렵고, 잘못된 보수 · 보존으로 2차 훼손이 발생할 수 있어 장기적 보존을 위한 원형 기록은 필수다. 그런 의미에서 성보문화재연구원(원장 지현)과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이 진행하는 '대형불화 정밀조사 사업' 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대형불화 정밀조사 사업' 은 지난 2015년에 시작해 2024년까지 10년에 걸쳐 이뤄지며, 조계종 총무원과 국립문화재연구소가 협업 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다.

5년차 사업에 접어든 지난해에는 △국보 제297호 안심사영산회괘불탱 △보물 제1258호 보살사영산회괘불탱 △보물 제1261호 광덕사노사나불괘불탱 △보물 제1344호 금탑사괘불탱 △보물 제1608호 선석사영산회괘불탱 △보물 제1792호 봉선사비로자나삼신괘불도 △김천 직지사괘불탱(비지정) 등 7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으며, 최근



성보문화재연구원과 문화재청이 진행하는 '대형불화 정밀조사' 4차 보고서.
사진= 박재완 기자

전국 주요사찰 괘불 7점 연구
정밀실측 · 채색 · 궤 등 조사
보살사괘불 배채법 사례 확인
보물 예고된 직지사괘불 '성과'

2015~2024년 10년 연구 불사
대형불화 원형 연구에 큰 기여


5년차 사업이 진행된 2018년도에 조사된 괘불탱들의 일부. (사진 왼쪽부터) 보물 제1261호 광덕사 노사나불 괘불탱, 국보 제297호 안심사영산회괘불탱, 보물 제1792호 남양주 봉선사 비로자나삼신괘불도.

관련 보고서가 발간됐다.

이번 보고서에는 괘불탱 7건의 현황과 정밀 실측, 과학적 분석, 채색 정보, 문양, 관련 유물 등에 대한 원형 자료를 수록했다.

기존 조사에서 시도하지 않았던 '자외-가시광선 반사 분광분석' 을 이용해 안료 외에 염료 분석을 시도한 점도 눈길을 끈다. 채색 기법 연구를 통해 제작 방법을 검증하고, 전통 안료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현장 조채를 통해 그 결과를 수록했다.

괘불탱 관련 유물인 괘불궤 조사를 통해 17~18세기 불교 목공예의 이해도를 높였으며, 이를 통해 직지사괘불탱 괘불궤 · 금탑사괘불탱 괘불궤 · 광덕사노사나불괘불탱 괘불궤의 제작연도가 1646년 · 1697년 · 1748년으로 각각 확인했다.

이번 조사의 가장 큰 성과로는 보물 제1258호 보살사영산회괘불탱에서 조선 후기 괘불탱 중 유일하게 배채법(背彩法)의 사례를 확인한 점을 꼽을 수 있다. 사용된 바탕재가 57.5~62.1㎝정도 넓은 특수 비단인 '초(綃)' 인 것도 확인됐다. '초' 는 누에고치에서 뽑은 정련되지 않은 견사로, 신라시대부터 전통적으로 사용된 직물이다. 고려 · 조선시대에는 복식뿐만 아니라 회화의 고급 소재로 사용돼 왔다.

보물 제1344호 금탑사괘불탱의 경우 보관 장소인 극락전에서 현재 유일하게 남아 있는 괘불탱 반출입 시설이 발견돼 조선 후기 괘불탱 반출입을 위한 시설과 이동 방법을 확인됐다.

연구를 통해 비지정 문화재가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되는 토대를 만든 것도 중요한 성과다. 직지사괘불탱의 경우 괘불탱 관련 유물(복장낭, 복장 유물 등)을 전수 조사해 문화재 지정을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문화재청은 지난 4월 2일 직지사괘불탱을 보물로 지정예고했다. 실제, 4년동안 대형불화 정밀조사의 결과로 비지정 문화재였던 '군위 법주사 괘불도' '예산 대련사 비로자나불 괘불도' '상주 남장사 영산회 괘불도' 가 보물로 지정되는 성과가 있었다.

허상호 성보문화재연구원 조사팀장은 "직지사괘불탱과 앞선 3건의 괘불도들도 조사를 통해 확인된 자료들이 근거가 돼 보물로 지정됐다"면서 "괘불탱들의 원형 기록화와 향후 콘텐츠 개발을 위해서도 대형불화 조사사업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설명했다.

한편, 성보문화재연구원과 문화재청은 올해에는 △보물 제1259호 법주사괘불탱 △보물 제1264호 개심사영산회괘불탱 △보물 제1270호 은해사괘불탱 △보물 제1379호 축서사괘불탱 △보물 제1445호 예천 용문사영산회괘불탱 △보물 제1642호 안동 봉정사영산회괘불도 △김천 계림사괘불탱(비지정) 등 7건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조선 후기 스님 문집 '한글'로 만난다

동국대 ABC사업단, '용담집 · 극암집' · '경암집' 발간

'한국불교전서' 한글화 일환
극암 · 경암 등 시문집 韓譯해
원효 저술 〈금강삼매경론〉도

조선 후기에 활동한 고승들의 문집들이 한글로 번역됐다.

동국대 불교학술원 산하 불교기록문화유산 아카이브 사업단(이하 ABC사업단)은 "한국불교전서 한글화 사업의 일환으로 〈용담집 · 극암집〉, 〈경암집〉, 〈금강삼매경론〉을 한글로 번역 · 출판했다"고 4월 4일 밝혔다.

이번에 번역된 〈용담집 · 극암집〉은 조선 중후기에 활동한 용담선사 조관(1700~1762)의 문집인 〈용담집〉과 대구 팔공산 파계사를 중심으로 활동한 극암 사성(1836~1910)의 문집인 〈극암집〉을 한 권으로 엮은 결과물이다.

〈용담집〉은 목판본으로 1책 49장에 용담의 시와 문이 수록돼 있다. 시는 오언절구 46제 48수, 칠언절구 79제 86수, 오언율시 24제 24수, 칠언율시 50제 53수로 칠언율시가 가장 많으며, 문은 중창기 1편, 통문 1편 등 총 2편이 실려 있다. 〈용담집〉의 각종 시는 유불불이(儒佛不二)의 성정을 노래한 것으로 불교사상과 문학 분야에서 연구해 위상을 정립시킬 필요가 있는 귀중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역자로는 성재헌 한국불교전서 번역위원이 참여했다.

〈극암집〉의 저자인 극암은 다른 승려들과 그다지 시를 수창하지 않았다. 극암이 시를 수창한 인물은 관료보다는 주로 일반 유학자들이 많아 스님의 소탈한 성격을 엿볼 수 있다. 이대형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가 한글화 작업을 진행했다.

〈경암집〉은 영정조대에 함양 벽송사를 중심으로 영남에서 활동한 경암 응윤의 시문집이다. 경암 스님은 18세기 승단의 현실과 유불(儒佛) 담론에 관심이 많았다. 유불선을 회통하는 논리는 조선 시대 승려들의 대체적 경향인데, 경암 스님 역시 '삼교의 동이를 논한다(論三敎同異)' 를 통해 "유불선 삼교가 같다"고 주장했다.

또한 여러 편의 산문이 수록된 '권하' 에서는 유가의 문장과 흡사한 '오효자전(吳孝子傳)' 과 '박열부전(朴烈婦傳)' 을 주목할 만 하다. 특히 '박열부전' 은 국문학계에서 주요하게 언급되는 박지원의 '열녀함양박씨전(烈女咸陽朴氏傳)' 과



동일한 인물에 대한 글이므로 비교 · 연구할 만한 중요한 자료다.

ABC사업단은 "이번 번역 · 발간된 〈경암집〉은 최초의 번역서"라면서 "조선 후기 불교사와 문화 연구에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호귀 동국대 HK교수가 번역한 〈금강삼매경론〉은 원효 스님의 만년 저술로 〈금강삼매경〉에 대한 동아시아 최초의 주석서인 동시에 가장 권위 있는 주석서다. 이후 중국의 명대와 청대에 출현한 〈금강삼매경〉 주석서들의 선구가 됐다.

한편, 한국불교전서 한글본 역주 사업은 신라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총 324종에 달하는 불교 저서를 집대성한 한문불전 '한국불교전서(전 14책)' 를 한글화하는 사업이다. 신성민 기자

만해 주석처 심우장 사적 지정됐다

문화재청 지정 공고… '임정 23인 필묵' 등 등록예고

만해 한용운 스님(1879~1944)의 주석처였던 서울 성북동 심우장이 사적으로 지정됐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 '만해 한용운 심우장' 을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하고, '이봉창 의사 선서문' 등 2건을 문화재로 등록했다"고 4월 8일 밝혔다.

이번에 사적 제550호로 지정된 '만해 한용운 심우장' 은 승려이자 독립운동가인 만해 한용운 스님이 1933년에 직접 건립해 마지막까지 주석한 곳이다.

'심우도(尋牛圖)' 에서 유래한 '심우' 는 선불교에서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는 과정을 나타내는 말이다. 심우장은 집의 좌향(坐向)을 총독부의 방향을 피하여 동북방향으로 잡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어 만해 스님의 독립의지를 엿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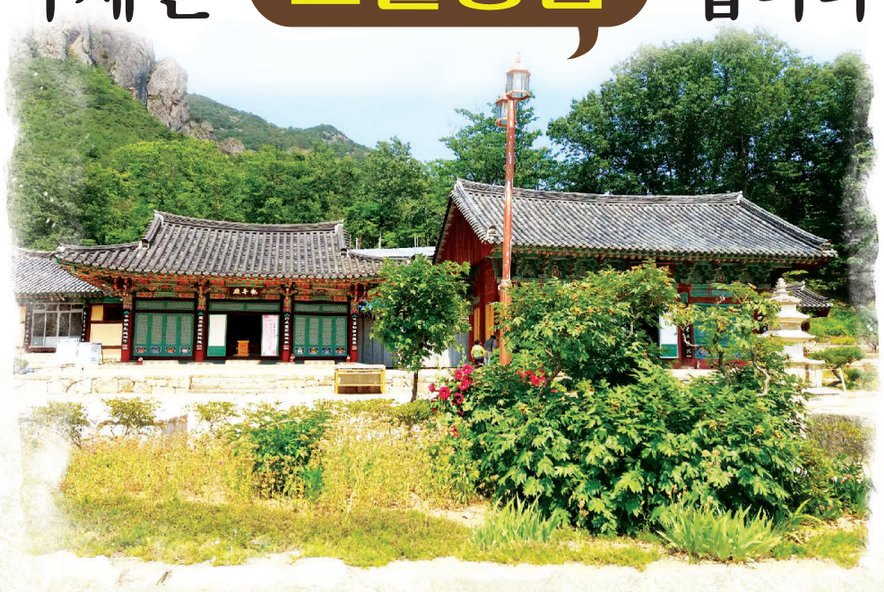
문화재청은 "전반적으로 만해 한용운 선생이 사용하던 주 공간으로서 원형이 잘 보존돼 있다"며 "독립운동 관련 활동과 애국지사들과의 교류 등에 대한 흔적이 남아 있다는 면에서 사적으로 문화재적 가치가 크다"고 지정 이유를 밝혔다.


사적 제550호로 지정된 '만해 한용운 심우장' 의 모습. 1933년 만해 한용운 스님이 직접 건립했으며, 1944년 이곳에서 입적했다.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이봉창 의사(1900~1932)와 관련된 유물은 '이봉창 의사 선서문', 백범 김구에게 보낸 '이봉창 의사 친필 편지와 봉투', '이봉창 의사 의거자금 송금증서' 등 3건이다.

또한 문화재청은 냉전 시대의 아픔과 평화의 염원을 담은 '고성 동해안 감시초소(GP)' 와 항일유산인 '대한민국 임시정부 환국기념 23인 필묵', 동해남부선 최초 역사인 '부산 구 동래역사', 초기 산업유산인 '세종 구 산일제사 공장' 등을 문화재로 등록 예고했다.

문화재청은 이번에 등록을 예고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환국기념 23인 필묵' 등에 대해 30일간의 예고 기간을 거쳐 최종 등록할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불교건축의 HOT 뉴스!
이제는 스틸공법 입니다

스틸공법 선두주자로 인기몰이 하고 있는 사찰건축 전문업체.
친환경적이며 단열효과가 탁월하고 구조변경이 용이합니다.
목조건축물보다 시공비 1/5정도 대폭절감, 단청까지 3~4개월.
습기에 강하고 내구성이 우수 합니다.
HOT
☎ 문 의 : 민성기업(구,대진기업) 010-2628-9944

붓다북 불교종합쇼핑몰 Buddha Book

지면에 진열된 상품들은 붓다북에서
미니불상으로
검색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www.buddhabook.co.kr
서울 성북구 보문로 38길 11 동일하이빌 지하 1층 (주) 운주사 Tel. 02-953-7181